

# 프로야구에 새 ‘이닝이터’ 필요하다

양현종 친정 KIA 복귀·느림의 미학 유희관 은퇴  
완투·완봉 기대할 투수 없어... 거대한 숙제 직면

원소 투수 양현종(34·KIA 타이거즈)은 돌아왔고, 같은 좌완 유희관(36·전 두산 베어스)은 정든 마운드를 떠났다.

2022년 프로야구는 ‘이닝이터’ 새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거대한 숙제와 마주한다.

양현종과 유희관은 지난 수년간 말 그대로 이닝을 잡아먹는, 많은 이닝을 던지는 KBO리그의 대표 이닝이터였다.

유희관은 시속 120km의 느린 볼로도 통산 101승을 거뒀다. 그의 상징인 독특한 ‘느림의 미학’보다도 그가 남긴 투구 이닝 수치가 더욱 대단하다.

유희관이 선발의 한 축을 꿰찬 2013년 이래 지난해까지 전체 투수들의 투구 이닝을 살펴보면, 양현종이 1위(1395⅓이닝), 유희관이 2위(1393⅓이닝)를 달렸다.

두 투수는 큰 부상 없이 선발로 해마다 평균 30경기씩 꾸준히 등판해 ‘이닝탑’을 쌓았다. 수술대에 올라 시즌을 포기한 적도 없었다.

둘은 많은 이닝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선발 투수의 가치를 높였다. 다승, 평균자책점 등 다른 지표와 비교해 투구 이닝은 투수가 상대적으

로 투수 분업화 시대에 선발 투수의 투구 이닝은 상당히 중요하다. 선발이 오래 버티야 중간, 마무리의 부하가 줄어 마운드 전체가 강해진다.

이미 KBO리그 각 구단의 외국인 투수 영입 후보도 15승 또는 20승을 거두는 선수보다 한 시즌을 완주할 수 있는 이닝이터로 바뀐 지 오래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닝이터 부문 선두를 다투던 유희관이 은퇴하면서 이제 양현종 홀로 남았다.

양현종은 2014~2020년 7년 연속 연평균 투구 이닝 170이닝을 넘긴 강견의 소유자다.

우리 나이 30대 중반에도 일관성 있는 투구를 선사할 수 있다면 옵션 대부분을 채길 것으로 보인다. 양현종은 KIA와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30억원, 연봉 총액 25억원,

옵션 48억원 등 총액 103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로 사인했다.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34)이 KBO리그를 떠난 뒤 완투·완봉을 기대할 만한 투수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는 국제대회에서 한 경기를 믿고 맡길만한 투수가 없다는 한국 야구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어졌다.

김광현이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에서 뛰던 2010년, 193%이닝을 던져 류현진(당시 한화 이글스)을 1이닝 차로 따돌리고 그해 최다 투구 이닝 투수에 오른 뒤 이 부문 1위는 이방인 투수의 전유물이 됐다.

긴 이닝을 던지는 투수를 찾아보기 드문 KBO의 현실은 암울하다. 선수나 지도자가 몇 번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연합뉴스

## 치열한 선두권 경쟁 ‘이상기류’

2021~2022시즌 프로농구  
모비스 상승세-kt 내림세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현대모비스는 23일 수원 kt와 경기에서 79-76으로 승리, 최근 5연승을 내달렸다.

21일에는 3위 안양 KGC인삼공사를 꺾고 공동 3위가 됐고, 23일 상대 kt는 2위 팀이다.

20승 14패를 기록한 현대모비스는 인삼공사와 함께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으며 2위 kt와 승차는 2.5경기로 좁혔다.

현대모비스는 시즌 초반 1승 6패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후 19승 8패의 상승세를 보이며 어느덧 선두권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9승 1패를 기록했다. 그 1패는 4월 1위팀 서울 SK에 1점 차 패를 당한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라슨 토마스가 국내 리그 적응을 마치고 최근 안정된 기량을 선보이고, 강력한 신인

왕 후보 이우석이 연일 좋은 활약을 펼치며 승수를 쌓는 중이다.

반면 kt는 최근 4연패 내림세로 공동 3위 팀들에 2.5경기 차로 쫓겨 왔다. SK와 ‘통신 라이벌’ 양강 체제를 구축하며 선두 경쟁을 벌였으나 지금은 SK와 승차가 3.5경기로 벌어졌다. 특히 최근 7경기에서 1승 6패로 부진하다.

에이스 허훈이 발목 통증을 이유로 23일 현대모비스와 경기에서 4쿼터 들어서야 출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52.6%였던 김동욱의 3점슛 성공률이 1월에는 20.7%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다행히 kt는 이번 주 29일 인삼공사와 한 경기만 치르는 일정이라 숨돌릴 여유가 있는 편이다.

또 상승세인 현대모비스는 26일 원주 DB, 28일 전주 KCC, 30일 창원 LG 등 중하위권 팀들과 연달아 홈에서 만나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다.

8연승 중인 1위 SK, 최근 원정 경기 17연패 중인 최하위 삼성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한 골 더 추가요” 23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보르도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에서 황의조(30·보르도)가 프랑스 리그 진출 이후 최초로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리그1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이날 경기는 황의조의 맹활약으로 보르도가 4-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대니엘 강’ 투어 시즌 개막전 우승

LPGA 힐튼 그랜드 챔피언스  
박인비는 공동 8위로 마무리

교포 선수 대니엘 강(미국)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대니엘 강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 72·661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대니엘 강은 2위 헨더슨을 3타 차로 따돌리고 투어 통산 6승째를 수확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6000만원)다.

대니엘 강은 2020년 8월 마라톤 클래식 이후 1년 5개월 만에 투어 대회 정상에 다시 올랐다.

박인비(34)는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단독 선두였

던 세계 1위 넬리 코다(미국)는 이날 3타를 잃고 10언더파 278타, 공동 4위로 밀렸다. 대니엘 강은 딱 1년 전인 지난해 개막전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낸 우승이였다.

대니엘 강은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대회 기간 내내 선두를 지키다가 4라운드 16번 홀에서 제시카 코다(미국)에게 동타를 허용, 연장전을 벌인 끝에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8번 홀(파3) 연장에서도 대니엘 강이 코다보다 더 가까이 공을 붙였으나 9m 버디를 잡은 코다에게 결국 우승컵을 내줬다. 그러나 올해는 3라운드까지 지난해 개막전 챔피언 코다의 동생인 넬리 코다에 1타 뒤진 2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해 역전 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유명인 부문에서는 연장전에서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데릭 로(미국)와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성 대결’이 펼쳐졌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로가 약 7m 파 퍼트를 넣고, 소렌스탐은 그보다 짧은 퍼트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 승패가 정해졌다.

연합뉴스



제주대학교 검토부가 ‘2022년도 전국대학검도동계리그전 및 대학/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 경기에서 남대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 제주대 검도부 동계리그 단체 준우승

김성현·전철영 대학 상비군

제주대학교 검토부가 ‘2022년도 전국대학검도동계리그전 및 대학/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 경기에서 남대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김성현·전철영은 남대부 대학 상비군에 발탁되는 쾌거를 이뤘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에 따르면 제주대 검도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창원 국민체육

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예선 리그전 조2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후 충북대와 대전대를 내리 이기며 창단 후 단체전 첫 결승에 진출했지만 용인대에 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와함께 지난 21일 치러진 대학 상비군 선발전에 출전한 김성현과 전철영은 각조 4위와 5위에 랭크되면서 2년 연속 대학 상비군에 선발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www.jejuwelling.com

해녀영양식

제주해녀들이 직접 만든

# 해삼몸국

**해삼몸국은 해녀들이 영양식으로 드시던 비법 그대로 제주전통방식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해삼몸국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아요!

-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생**
-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족**
-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어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 면역력 높이는 특별 영양식을 선호하는 **미식가**

**해삼몸국의 특징**

- 8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 잘 건조된 모자반을 찬 물에 불려 염분을 뺀 몸
-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우는 몸에 좋은 해삼
- 3無 첨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

**전자레인지 조리시**

해동 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어 전용 덮개 또는 랍을 씌워 약 4분(700W 기준)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1KW 기준 3분

**냄비 조리 시 (직접 가열 시)**

해동 후 개봉하여 냄비 뚜껑에 부은 후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간이 되어 있으면 기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어 드세요 오래 끓이면 짭 수 있으니 조리시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중탕 조리시**

해동 후 끓는 물에 제품을 봉지째 그대로 넣고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 끓는 물 중탕 조리 시 제품이 터질지 모르니 냄비의 무릎을 닫지 마십시오

※ 개인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64-725-1100

제조 판매원 신한에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길 7-10